

# 부산시 유통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실태연구

## 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최근 수산물 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양식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
- 하지만 양식환경의 악화 및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
- 따라서 식품위생상 유해요소인 잔류동물용의약품, 중금속 및 방사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함

## II 연구개요

- 기 간 : 2021. 1. ~ 2021. 12.(1년)
- 대 상 : 부산지역 유통 수산물(동물용의약품 51건, 중금속 157건, 방사능 322건)
- 항 목 : 동물용의약품 42종, 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), 방사능(<sup>131</sup>I, <sup>134</sup>Cs, <sup>137</sup>Cs)

## III 연구결과

- 양식산수산물 51건 검사결과 동물용의약품은 어류 9건에서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(17.6%)됨. 트리메토프림 3회, 시프로플록사신 3회, 엔로플록사신 1회, 린코마이신 2회 검출되었으며 트리메토프림의 검출량은 광어·우럭에서 0.001 ~ 0.045 mg/kg, 엔로플록사신은 우럭에서 0.025 mg/kg, 시프로플록사신은 우럭·전어에서 0.003 ~ 0.073 mg/kg, 린코마이신은 농어·광어에서 0.008 ~ 0.038 mg/kg 으로 검출됨
-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157건에 대한 중금속 검사결과 평균 검출량은 납 0.024 mg/kg, 카드뮴 0.063 mg/kg, 수은 0.074 mg/kg 이었음. 검사대상 유형별 납의 평균 검출량은 어류 0.012 mg/kg, 패류 0.099 mg/kg, 두족류 0.045 mg/kg, 갑각류 0.005 mg/kg, 해조류 0.017 mg/kg, 수산물가공품 0.002 mg/kg임. 카드뮴의 평균 검출량은 어류 0.004 mg/kg, 패류 0.443 mg/kg, 두족류 0.165 mg/kg, 갑각류 0.010 mg/kg, 해조류 0.165 mg/kg, 수산물가공품 0.026 mg/kg 이었다. 또한 수은의 평균 검출 함량은 어류 0.093 mg/kg 이었으며 패류 0.008 mg/kg, 두족류 0.062 mg/kg, 수산물가공품 0.045 mg/kg로 조사되었고 모두 MRL 이하로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 규격에 적합한 수준이었음
- 방사능(<sup>131</sup>I, <sup>134</sup>Cs, <sup>137</sup>Cs) 검사 결과 321건에서 MDA값 이하로 불검출이었고, 농어 1건에서 <sup>137</sup>Cs이 1 Bq/kg 검출되었으며, 기타 핵종 방사능 검사 결과 <sup>238</sup>Pu, <sup>239</sup>Pu, <sup>240</sup>Pu, <sup>90</sup>Sr은 검출되지 않았음

## IV 정책연계방안

- 부산지역 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이화학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수준 실태 파악 및 연간 안전성 검사 계획에 반영

## V 활용계획

- 식품안전관리지침 등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